

▶ 달러/원 주간 전망

• 어수선하지만 약해지는 달러..박스권 접근 유효

서울, 2월1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며 최근의 거래 레인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 환율 범위는 1430-1460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엄포에도 각국 마다 협상 시간이 마련된 상황에서 글로벌 달러는 일단 약세다. 연초 110선을 넘봤던 달러지수는 현재 작년 12월 중순 수준인 106선으로 내려왔다.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하반기로 대폭 미뤄졌지만, 달러는 트럼프 당선 이후 취임까지 내달려온 행보에 대한 되돌림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 증시를 통한 위험선호도 대체로 지지되고 있어 투자심리에도 별다른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강달러 완화 속 달러/원 환율은 이전보다 확실히 상단 저항이 강해졌다. 정국 불안이라는 자체적인 재료에 한동안 휘둘렸던 원화가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글로벌 달러 흐름과 대체로 보폭을 맞추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트럼프 한마디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은 여전한 데다 무엇보다 아직 중국과의 가시적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점은 원화에 있어 부담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가능성에 지난 주 유로는 달러대비 1.5% 가량 절상됐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 일방적 종전 추진 가능성 속 사실상 배제된 유럽 국가들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를 둘러싼 잡음이 나올 여지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로가 변동성을 키울지 지켜봐야할 듯하다.

연준 정책회의록이 공개되지만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최근 연준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터라 연준 회의록에 따른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주는 미국 경제지표보다 소비적도를 가늠할 수 있는 월마트 실적에 보다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월 소매판매가 근 2년 반만에 최악의 실적을 보인 이후 발표되는 월마트 실적에서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될지가 조명받을 전망이다.

최근 역내 수급이 크게 일방향으로 쏠리지 않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장중 대체로 좁은 박스권 장세다. 달러선물시장이나 외인 주식 매매 동향에 있어서도 이렇다할 특이점을 찾기 힘들다. 딱히 정돈되지 않은 대외 여건에서도 예상을 뒤엎는 악재도 없다는 판단 아래 원화는 당분간 눈치보기 장세를 이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획재정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최근 금융 및 외환시장에 대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 주간 세계 이슈

⊙ 전쟁과 평화

도널드 트럼프의 개입으로 세계 최악의 분쟁지 두 곳의 운명이 갑자기 극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기존 휴전 협정에 따라 15일(현지시간) 수감자와 인질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가 석방한 이스라엘인 남성 인질 3명이 이스라엘로 귀환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369명을 풀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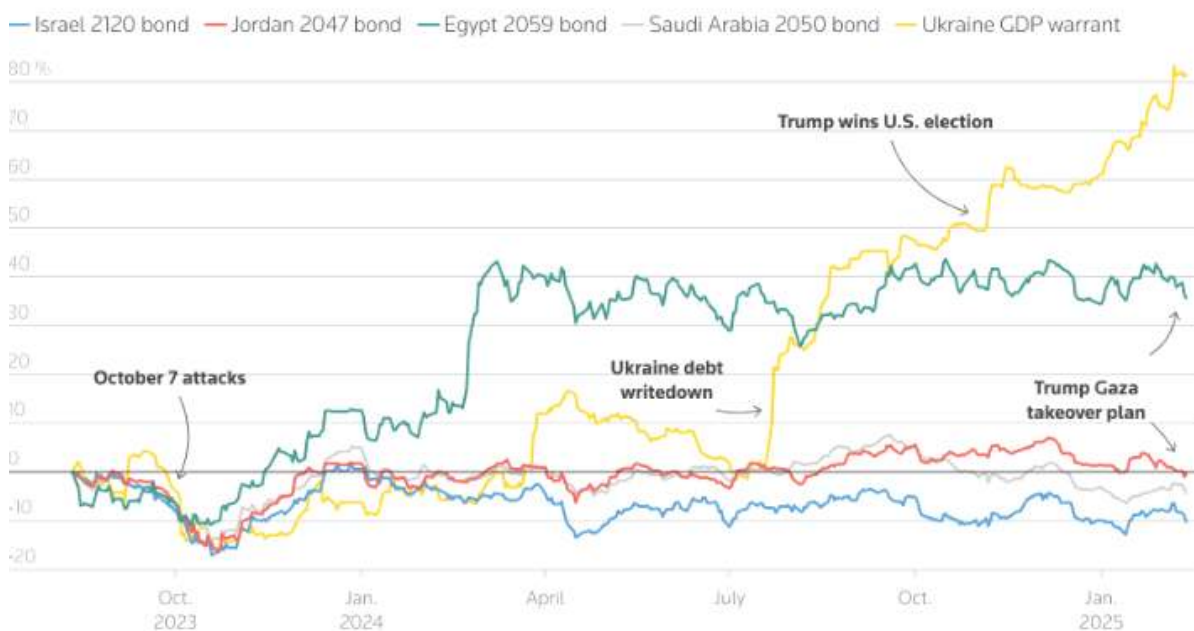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마스에 압력을 가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긴 회담에서 종전 가능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유럽 시장은 평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

War worries and peace plans

Trump Gaza plan triggered warnings ceasefire could collapse, but his Ukraine calls fuelled truce hopes



⊙ 금, 불멸의 존재

금값(XAU=)의 급등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값이 하락하는 달러와의 고전적인 '역' 상관관계는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투기세력들이 금을 차세대 투자처로 결정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요의 대부분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세계 무역, 금융 흐름, 지정학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불참하는 오는 20~21일 G20 회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달러화 비중을 줄이기 위해 보유 자산을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 트레이더들은 트럼프가 귀금속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생각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을 뉴욕 금고로 유입시키고 있다.

금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10% 이상 상승해 약 3000달러까지 올랐다. 다음 목표는 4000달러가 될까?

Gold rush

Traders are stashing gold bars in New York vaults at the fastest rate since 2020



Source: LSEG/Reuters - Amanda Cooper, February 12, 2025

⊙ 소비자 보고서

목요일에 발표될 월마트의 분기 보고서는 월가가 강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건전성을 조명할 것이다.

거대 소매업체 월마트의 실적은 인플레이션이 쇼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트럼프 관세의 잠재적 여파에 대한 조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최신 서베이에 따르면 2월 소비자 심리는 7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치솟았다. 또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1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거의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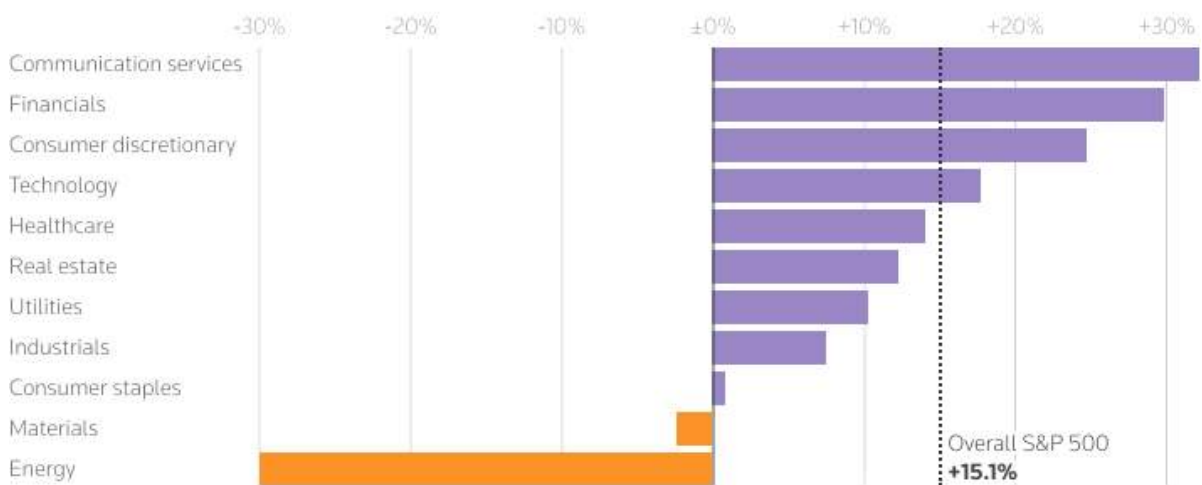
미국의 금리 인하 베팅이 철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실적을 발표할 미국 소매업체로는 홈디포, TJX 코스, 타깃 등이 있다.

LSEG IBES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월1일 기준 9.6%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더 좋아진 수치다.

Most S&P 500 sectors likely ended 2024 with double-digit growth

Estimated change in earnings for the fourth quarter of 2024 from same period a year ago



Note: Forecasts as of Feb. 12.

Source: LSEG I/B/E/S | REUTERS, Feb. 12, 2025

㉠ 호주 중앙은행 등 금리 결정

이번 주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화요일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0#AUDIRPR,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 시장의 강세를 고려할 때 여전히 매파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작년 8월 이후 이미 금리를 무려 125bp 인하한 데 이어 다시 5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문제는 암울한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RBNZ가 금리를 얼마나 더 낮출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상황이 더 까다롭다. 지난달 깜짝 금리 인하 이후,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인플레이션과 성장 데이터가 추가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루피아화 약세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손을 묶어두고 있다.

㉠ 英 인플레이션 지표

영란은행은 지난 6일 기준금리를 4.5%로 인하했지만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으로 추가 인하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19일 발표될 영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시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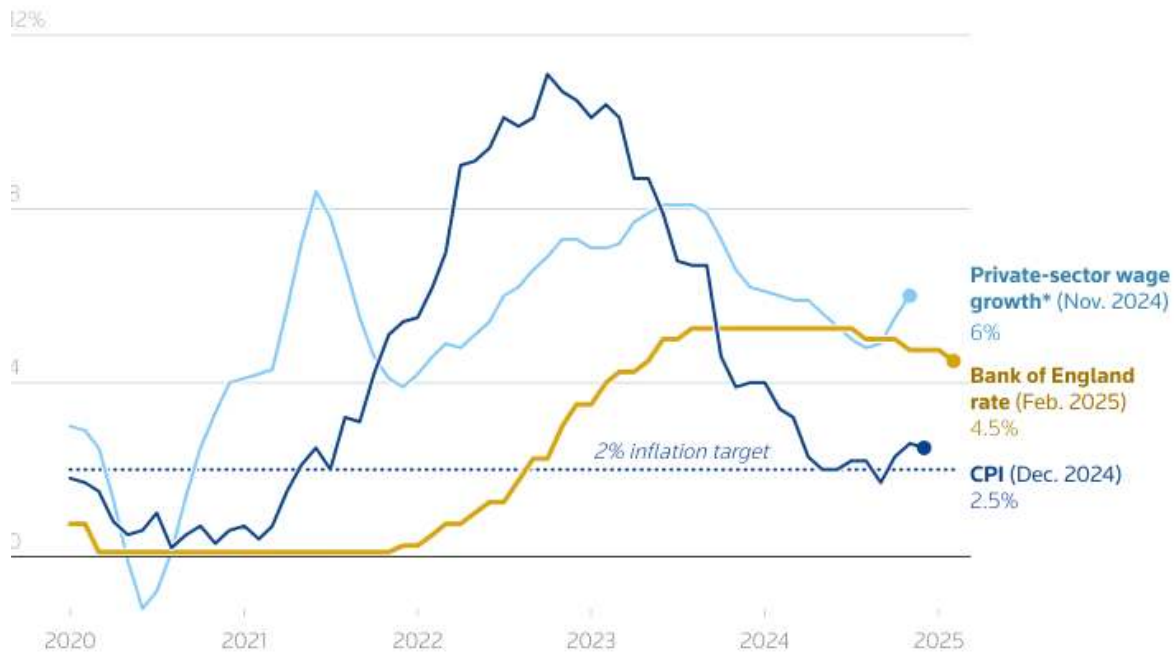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영국 1월 CPI 상승률이 전년비 2.8%로 12월의 2.5%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란은행은 에너지 가격, 수도 요금, 버스 요금, 사립학교 수업료 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회성 요인들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3분기에는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PI에 앞서 18일 발표되는 영국의 노동 시장 데이터도 주목받고 있다. 영란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휴 필은 최근 6%의 민간 부문 임금 상승률을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설명하며 기업들의 2025년 임금 상승률 3.7% 전망도 여전히 너무 높아 안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oE's inflation fight not over yet

Latest British inflation numbers are out on Wednesday.



*Private-sector wage growth excluding bonuses, annual growth in 3-month moving average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Feb. 13, 2025 | By Pasit Kongkunakornkul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물가·관세 소용돌이 속에서 월마트 실적 주목

뉴욕, 2월17일 (로이터) - 이번 주 발표될 월마트 분기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미국 소비 척도로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S&P500지수.SPX는 지난 한 주 동안 약 1% 상승했는데, 뜨거운 소비자 물가 결과로 투자자들이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회복력을 보였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오는 목요일에 발표되는 소매업체 월마트 실적 보고서를 WMT.N를 통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다코타 웰스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로버트 파블릭은 "월마트는 소비자 지출과 소비자 건강에 관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월마트 실적을 통해 "식품과 휘발유 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의 재량 지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500지수는 올해 3% 이상 상승했으며, 업종별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관세와 연방 정부의 비용 절감, 그리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망스러운 데이터 등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 발표를 소화했다.

지난 수요일에는 1월 소비자 물가가 거의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 경영진은 관세로 인한 잠재적 여파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연초 이후 S&P 1500에 속한 약 430개 기업이 실적 발표나 투자자들과의 행사에서 관세를 언급하거나 관세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집중 조명받는 월마트

밀러 타박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매트 말리는 아마존AMZN.O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기업으로서 월마트의 논평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마트의 실적과 가이드نس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월마트 발언을 통해 사람들이 "관세에 대해 너무 걱정해서 일부 지출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마트 대변인은 회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용한 시기라며 논평을 거부했다.

월마트 보고서에 이어 앞으로 몇 주 안에 주택 개량 업체인 홈디포HD.N, 할인 소매업체 TJX CosTJX.N와 타깃TGT.N 등 다양한 소비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미국 기업의 4분기 실적 보고 시즌도 마

무리될 예정이다.

LSEG IBES 데이터에 따르면 지수 기업 거의 4분의 3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S&P500 기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해 3년 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5년 S&P500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연초 이후 완만해졌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4분기 실적의 낙관론이 약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익에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의 잠재적 영향은 이번 주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체리 레인 인베스트먼트의 파트너인 릭 메클러는 "무엇이 협상이고 무엇이 정책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2월17일 (월)

- ⊙ 기획재정부: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10:00)

2월18일 (화)

- ⊙ 한국은행: 임시국회
-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가계신용(잠정) (12:00)

2월19일 (수)

- ⊙ 금융감독원: 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10: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 (12:00)

2월20일 (목)

- ⊙ 한국은행: 2025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한국은행: 202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 금융감독원: 원장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 (10:00)
- ⊙ 기획재정부: '25.2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00)

2월21일 (금)

- ⊙ 한국은행: 2025년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기획재정부: 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09:00)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2월17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2월10-17 일		중국	FDI (YTD)	1월		-27.10%
2월17일	08:50	일본	GDP QQ 연율	4분기	1.0%	1.2%
2월18일	22: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월	0.00	-12.60
2월19일	00: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2월	47	47
2월19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2월		2
2월19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12월	0.1%	3.4%
2월19일	08:50	일본	수출 YY	1월	7.9%	2.8%
2월19일	08:50	일본	수입 YY	1월	9.7%	1.7%
2월19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1월		-5.3%
2월19일	18:00	유로 존	경상수지 NSA,EUR	12월		34.62B
2월19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2월 10일 주간		230.0
2월19일	22:30	미국	건축허가건수	1월	1.460M	1.482M
2월19일	22:30	미국	주택착공건수	1월	1.397M	1.499M
2월20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2월		3.10%
2월20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2월		3.60%
2월20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월 10일 주간	215k	213k
2월21일	00:00	유로 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월	-13.9	-14.2
2월21일	08:30	일본	CPI MM NSA	1월		0.6%
2월2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2월		48.7
2월21일	18:00	유로 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2월	47.0	46.6
2월21일	18:00	유로 존	HCOB 서비스업 PMI 잠정치	2월	51.5	51.3
2월21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2월	51.3	51.2
2월21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2월	53.0	52.9
2월22일	00:00	미국	기존주택판매	1월	4.13M	4.24M
2월22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2월	67.8	67.8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2월17일 (월)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바하마대학 연설 (오후 11시30분)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국은행가협회 주최 컨퍼런스 연설 (18일 0시20분)
- ⊙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경제 전망 관련 연설 (18일 오전 8시)
- ⊙ 호주 중앙은행 정책회의 (18일까지)
- ⊙ 휴장국가: 미국

2월18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정책회의 결과 (오후 12시30분)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미국은행가협회 주최 컨퍼런스 연설 (19일 0시20분)
- ⊙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경제와 금융 안정성 속 AI' 관련 연설 (19일 오전 3시)

2월19일 (수)

-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전 10시)
- ⊙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1월28~29일 회의 의사록 (20일 오전 4시)
- ⊙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가계 대차대조표' 관련 연설 (20일 오전 7시)

2월20일 (목)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행사서 질의응답 세션 참여 (오후 11시35분)
- ⊙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뉴욕경제클럽 연설 (21일 오전 2시5분)
- ⊙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감독 및 규제' 관련 연설 (21일 오전 4시30분)
- ⊙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필립스 곡선과 인플레이션' 관련 연설 (21일 오전 7시)

2월21일 (금)

- ⊙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중앙은행 소통' 관련 연설 (22일 오전 1시30분)

(김지연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 준비

워싱턴/싱가포르/타이베이, 2월14일 (로이터) - 백악관이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재협상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 예정된 반도체 지출을 일부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정통한 소식통 2명이 로이터에 밝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변경한 후 일부 거래를 재협상할 계획이다. 변경 범위와 이미 확정된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았다. 아직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만의 글로벌웨이퍼스6488.TWO의 리아 팡 대변인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반도체법 프로그램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조건이 모든 반도체법 직접 자금 지원 계약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대만의 글로벌웨이퍼스는 텍사스와 미주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4억600만달러의 미국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글로벌웨이퍼스는 2025년 후반에 특정 마일스톤을 달성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논의에 대해 알고 있는 소식통 3명은 로이터에 백악관이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법 산업 보조금과 관련된 많은 조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수혜자가 공장 건설을 위해 노조 가입 노동자를 사용해야 하고 공장 근로자에게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계약에 추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백악관과 미국 상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무역 단체인 반도체산업협회의 대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인 데이비드 아이작스는 "제조 인센티브와 연구 프로그램이 중단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 후보자 및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요건을 간소화하고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후 중국 등 상당한 해외 확장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중국에 대한 일부 투자를 허용했다.

인텔, TSMC2330.TW, 삼성전자005930.KS, SK하이닉스 000660.KS 등은 반도체법 펀딩을 가장 많이 수령한 기업들에 속하며, 모두 중국에 주요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단독)-시진핑, 中 비즈니스 리더 참석하는 심포지엄 주재 계획

2월14일 (로이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알리바바9988.HK 공동 창업자 마윈을 비롯한 중국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을 주재할 계획이라고 회의에 정통한 3명의 관계자가 밝혔다.

시 주석은 민간 부문 심포지엄 의장을 맡은 적이 거의 없으며, 이번 행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의 긴장 고조부터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까지 현재 중국이 직면한 수많은 도전 과제를 부각시킨다.

많은 기업가들이 기술 분야 출신이며, 시 주석은 미중 기술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두 소식통은 전했다.

세 명의 소식통은 심포지엄이 오는 월요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FACTBOX)-트럼프의 모든 관세 및 무역 위협 조치

2월10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수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품에 부과금을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더욱 빈번하게 하고 있다.

외국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관세부터 특정 부문, 지역 또는 국가를 겨냥하여 다른 국가들이 자신의 정책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관세까지 다양하다.

트럼프의 위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액 부과부터 200%를 초과하는 관세까지 다양하게 변화해 왔으며, 다른 국가와 기업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은 트럼프의 무역 관련 조치와 위협을 정리한 것이다.

◆ 광범위한 관세

트럼프 비전의 초석에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의 단계적 시행이 포함된다.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2.5%로 시작해 매달 인상될 관세율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는 한때 미국 세수의 주축이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세수의 일부로 줄어들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를 지불하는 수입업체들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금요일 트럼프는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관세를 부과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의 농산물, 에너지, 기계류 수출을 겨냥해 대항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대되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 특정 국가

트럼프의 관세 제안은 몇 가지 주요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다.

멕시코와 캐나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2024년 11월까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멕시코가 1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과 펜타닐 밀매에 대한 보복으로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되기 직전에 트럼프는 두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 중인 3월1일까지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9일 트럼프는 두 나라 모두 이민자나 마약의 흐름을 막을 만큼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주로 북미 자동차 제조 체인의 일부로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함께 원유 및 기타 에너지 상품을 수출한다. 멕시코는 산업 및 자동차 부문에서 다양한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 트럼프는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여 약속을 지켰다.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보복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양국은 오랜 무역 전쟁을 벌여 양국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유럽: 트럼프는 EU와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 흑자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가스 수출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곧 타결되지 않으면 "러시아와 다른 참여국"에 세금, 관세,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인도/브릭스 국가: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도를 무역을 "매우 악용하는 국가"라고 부르며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통화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콜롬비아: 트럼프는 콜롬비아가 미국으로부터 추방될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편의 입국을 거부하자 콜롬비아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양측은 합의를 도출했다.

◆ 제품

금속: 트럼프는 9일 자동차 제조업체, 항공 우주 회사, 건설 및 인프라에 사용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수입국이다. 국제 무역 관리국에 따르면 미국은 10년 동안 철강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 수입국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에서 수입된다.

반도체: 트럼프는 수입 컴퓨터 칩에 관세를 부과하고 싶으면서 세계 최대 위탁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가 엔비디아, 애플 및 기타 미국 고객을 위해 반도체를 제조하는 대만을 지목했다. TSMC는 2024년 매출의 70%를 북미에 기반을 둔 고객으로부터 창출했다.

제약: 트럼프는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공급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변화가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면제되었다.

자동차: 트럼프는 잠재적으로 전기차를 포함한 다른 차량에 대해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자동차 산업은 2024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2,020억 달러 이상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